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친구야! 우정은 잠시 접자

박지성-테베스 내일 밤 서로 창끝 겨눠

'우정은 잠시 접자, 이제 우리는 창끝을 겨눠야 할 사이다'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지성이 맨유 시절 파트리스 에브라(29)와 함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르헨티나의 공격수 카를로스 테베스(26·맨체스터 시티)가 적으로 만난다.

박지성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고 테베스는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이 지휘하는 아르헨티나의 주축 공격수다.

박지성과 테베스는 조국의 명예를 걸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양보할 수 없는 벼랑 끝 승부를 펼쳐야 한다.

박지성은 허정무 감독이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는 한국 대표팀의 전력 핵심이다. 허정무 감독은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맞아 4-2-3-1 전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히든카드로 공격형 미드필더 특명을 박지성에게 맡길 공산이 크다.

박지성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종횡무진 플레이가 빛을 발한다면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테베스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 등과 함께 아르헨티나 공격의 3각 편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메시의 득점 찬스를 만드는 헌신적인 플레이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테베스의 활약은 아르헨티나 공격의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테베스가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하며 한국의 문전을 휘젓는다면 허정무호로선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다.

박지성도 테베스의 아르헨티나 대표팀 내 입지를 인정하고 있다.

박지성은 "테베스는 기록으로 보나 플레이에서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위협적인 존재다. 메시와 테베스 등 한 선수를 막는 것보다 아르헨 전체 공격을 봉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때 맨유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2007-2008 시즌 맨유의 더블 우승(UEFA 챔피언스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시즌 2관왕)을 합작했던 박지성과 테베스. 이제는 적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어떻게 희비가 엇갈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와의 2차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축구대표팀이 15일 오후 루스텐버그 올림피아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훈련에서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강팀도 두렵지 않다"

해외파 10명 자신만만

"스페인·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통해 세계 톱클래스 선수들과 대결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고 실점하지 않는지를 경험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강팀과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축구 대표팀의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33·알 힐랄)는 지난 14일(한국시각) 아르헨티나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17일 오후 8시30분·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을 사흘 앞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결연한 출사표를 던졌다.

대표팀 '캡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아르헨티나가 강팀이라고 하더라도 스페인과 평가전, 그리스와 1차전에서 보여줬던 자신 있게 경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승 후보로까지 꼽히는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에 주눅이 들지 않는 건 허정무호의 강점 중 하나다. 대표팀의 주축을 형성하는 해외파가 이런 자신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박지성 "자신감 갖고하면 좋은 결과"

기성용 "좋은경험 당당하게 싸우겠다"

최종 엔트리 23명 중 외국 무대에서 뛰는 선수는 10명. 이 중 박지성과 이청용(22·볼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량을 인정받았고 간판 공격수 박주영(25·AS모나코)도 프랑스 리그에서 맹활약했다. 차두리(30·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분데스리가, 기성용(21·셀틱)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각 뛰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 몸담았던 이영표(33·알 힐랄)와 베테랑 미드필더 김남일(33·톰 톰스크)도 유럽파다. 안정환(34·다롄 스더)도 이탈리아-프랑스-독일-일본-중국을 돌아다니며 외국에서 잔뼈가 굵었다. 수비수 이정수(30·가시마)와 미드필더 김보경(21·오이타)은 일본 J-리그에 적을 두고 있다.

이는 허정무호가 세계적인 강팀과 대결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원천이다.

허정무 감독은 해외파들을 앞세워 지난 3월3일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서 2-0 승리를 엮어냈고 남아공 입성 직전이던 4일 '무적함대' 스페인과 모의고사에선 0-1로 졌지만 팽팽한 접전을 보여줬다.

해외파 선배들의 '무용담'을 전해 들은 젊은 선수들도 자신감이 전염돼 당당하게 맞설 태세다. 해외 리그에서 뛴 선배들의 경험과 강팀과 맞대결에서 확실한 예방주사를 맞은 젊은 선수들이 아르헨티나와 경기에도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이유다. 대표팀 막내인 기성용은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한 아르헨티나와 경기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많이 긴장하지 않고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다윗, 골리앗 이겼다"

허정무, 아르헨전 자신감 피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첫 경기에서 그리스를 완파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허정무(55) 감독이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맞대결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허 감독은 14일 오후 대표팀 숙소인 남아공 루스텐버그의 헌터스레스트 호텔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다혈질적인 면이 있는 상대를 좀 더 어렵게, 초조하게 만들면 우리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 우리도 충분히 세계의 벽에 도전할 수 있다"며 아르헨티나와 2차전을 기대했다.

12일 그리스와 1차전에서 2-0으로 이긴 한국 대표팀은 17일 오후 8시30분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2차전을 치른다.

허 감독은 "아르헨티나는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강팀임에는 틀림없다. 이들을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중요하다. 상대가 공격 숫자를 늘릴 때 역습을 노려야 한다. (아르헨티나와 1차전에서 0-1로 패한) 나이지리아도 기회를 많이 잡았다"면서 "물론 우리가 많이 시달리겠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고 상대의 허점을 노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감독은 그리스전 승리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령탑이 됐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1승이 아니라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다.

허 감독도 목표를 잊지는 않았다. "어려운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첫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얻었다. 선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 한다. /연합뉴스

호날두 애인 '샤이크'

베컴 부인 빅토리아 | 콜의 부인 쉐릴 | 루니의 부인 콜린 | 제라드의 부인 알렉스 | 크라우치 애인 아비

튀는 'WAGs' 누구?

축구스타 부인·애인들 응원 위해 속속 입국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각국의 불꽃 튀는 승부 외에도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파비오 카펠로 잉글랜드 대표팀감독이 '바이러스'라고까지 비하한 '왁스(WAGs·Wives and Girlfriends·축구스타들의 아내와 여자친구)' 군단의 행보가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직 패션모델부터 가수·칼럼니스트·영양사까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그들은 남편과 남자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속속 남아공에 입국 했었다. 수백억의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스타들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그녀들.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해야할 '왁스'는 누가 될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람은 월드컵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득점왕 후보의 그녀들이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23·바르셀로나),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5·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의 다비드 비야(29·바르셀로나), 잉글랜드의 웨인 루니(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스타들 곁에는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들이 있다.

'제2의 마라도나'라고 불리는 메시는 동갑내기 고향친구인 안토넬라 로쿠조와 연애 중이다. 로쿠조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지난해 12월 고향을 찾은 메시를 만나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다. '나이트클럽을 단 한번도 가본 적 없다'는 건실청년 메시는 로쿠조와 올 연말 결혼을 앞두고 있다.

바람둥이로 소문난 호나우두는 올해 월드컵을 러시아 출신의 모델 이리나 샤이크와 함께 한다. 지난해 10월 조르지오 아르마니 속옷 모델로 발탁된 호날두는 광고촬영 중 샤이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루니의 아내 콜린(24), 비야의 아내 패트리샤(28) 등도 속속 아이를 앞세우고 남아공을 찾았다. 이들 커플은 모두 어린시절 첫사랑과 결혼했다는 것이 공통점. 일찌감치 결혼한 비야는 패트리샤와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루니와 100억원이 넘는 호화 결혼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잉글랜드의 차세대 '왁스' 콜린은 남아공행을 보류 중이다. 콜린은 최근 인터뷰에서 "잉글랜드가 4강에 오를 경우 남아공에 가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수문장 잔루이지 부폰(32·유벤투스)의 아내 알레나 세레도바(32), 스페인의 수문장 이케르 카시야스(29·레알 마드리드)의 아내 에바 곤잘레스(30), 아르헨티나 수비수 마르틴 데미첼리스(30·바이에른 뮌헨)의 아내 에반젤리나 앤더슨(28), 독일의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26·바이에른 뮌헨)의 연인 사라 브랜드너(21) 등이 있다.

이밖에도 스티븐 제라드(30·리버풀)의 부인 알렉스 커랜, 크라우치(29·토트넘)의 약혼녀 아비 클랜시 그리고 애슐리 콜(30·첼시)의 부인 쉐릴 콜 등도 미모와 아찔한 몸매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